



2026. 7. 23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기업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중단...대출 규제 확산

서울경제

<https://zrr.kr/X1PAxL>

IBK기업은행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높은 변동형 상품에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댄 이자+1000만원?...'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머니투데이

<https://zrr.kr/HmGzI8>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대출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금융 비용이 대폭 확대 가능

기업대출 수도권 쏠림 역대 최대...양극화 심화

매일경제

<https://zrr.kr/dcvv8O>

수도권 기업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
이재명 정부가 정책금융은 물론 민간 은행에도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지방 경기 악화로 지방금융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

신한銀 배달앱 '땡겨요' 전북銀 앱 속으로 ... 은행 간 첫 협업

매일경제

<https://zrr.kr/R1zpyY>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가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앱 '브라보코리아'에 탑재되어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 예정
은행권이 유통 등 타 산업과 손을 잡고 협업한 사례는 많지만, 은행 대 은행의 전략상품 협업은 사실상 최초

증권사로 몰리는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 독주 속 삼성·한투 추격

IT조선

<https://zrr.kr/mBuxBw>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이 1년 만에 50조원 넘게 늘어 165조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이 52조원으로 1위 유지, 삼성·한국투자증권이 뒤를 잇는 등 대형 증권사 집중 현상이 뚜렷
ETF 라인업과 모바일 투자 편의성,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산관리(WM) 상담 역량 등을 고루 갖춘 대형 증권사의 경쟁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홈플러스 '전단지 불판' 제재심 이르면 8월말...증권사 수천억 과징금 폭탄 맞나

머니투데이

<https://zrr.kr/V6IX6E>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신속한 제재절차를 공언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말 전단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전단지가 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이론적으로 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에 실손보험금 안준다

한국경제

<https://zrr.kr/P7ilSg>

하지정맥류 수술에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번 판결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고 '문지마 입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이제는 '판매'보다 '소비자 보호' 교육'...GA도 내부통제 경쟁 시대

보험매일

<https://zrr.kr/o1jtoN>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
그동안 GA 감독이 판매수수료와 모집 질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조직문화와 영업 전반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 강화 전망

美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집행 권한 이견에 상원 통과 '난항'

뉴스1

<https://zrr.kr/848vjp>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상원 통과에 난항
쟁점이 된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보수적인 러시아도 '코인 무역 결제' 제도화...한국은 2단계 입법 '제자리'

뉴스1

<https://zrr.kr/McSb1I>

러시아 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첫 종합 법안을 통과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온 러시아가 해외 무역 결제 등 가상자산 활용 범위까지 담으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